

45만년 비경 담은 '당산봉' 망가진다

주변경관 조망 최적지... 연중 탐방객 행렬 이어져 탐방로 흩 유실 가속... 행정 관리·복구 수수방관

제주시 환경면 고산리 당산봉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산봉은 약 45만년전에 형성돼 국가지질공원인 수월봉보다 학술적 가치가 크고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오름으로 알려져 있다. 해안과 맞닿아 있고 응회암으로 이뤄진 오름으로,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상에서 볼수 있는 일몰이 아름다운 곳이며 한라산과 35개 이상 오름, 비양도, 마라도, 가파도 등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올레꾼과 관광객, 각급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하지만 몇년전 사유지인 이곳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침목계단을 만든 후 지질 트래킹, 올레 코스 등으로 이용되면서 지질이 약한 누룩

돌(응회암)은 망가지고 있고 탐방객들이 낡은 침목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옆으로 다니면서 흩이 유실되고 있다. 게다가 침목계단을 고정시킨 말뚝이 5~10cm 정도 튀어나와 탐방객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와 화장실 문제도 해결되지 않다보니 오름 정상으로 향하는 탐방로에는 파리 등 해충이 득실거리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일부 등반객이 일몰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텐트를 치고 자거나 취사를 하고 있고 전망대를 오래된 거북바위와 연결하면서 탐방객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굴착기를 이용한 소나무 재선충 작업후 응회암이 심하게 훼손됐다.

당산봉 사유지 주인인 최모씨는 "너무 많은 훼손과 문제가 생겨 제주



당산봉 전망대에 오르는 탐방로 흩이 유실되는 등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도청에 여러번 민원을 넣기도 했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최근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당산봉에 시설물들을 허락없이 설치하고 망가지는 것

들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행정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당산봉 현장을 방문했고 문제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보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 ↓ 상반기 전년비 44% 감소

제주지역 경기 및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건설경기도 맥을 못추고 있다. 특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올 상반기 도내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크게 떨어지며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제주지역 건축허가 면적은 3853건에 99만㎡로, 작년동기 대비 24%(전국 평균 이하 생략, 14.9%) 감소했다. 특히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은 1784건에 32만㎡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견줘 43.7%(16.9%) 급락했다. 상업용 역시 1068건에 39만㎡로 20.3%(22.4%) 줄었다.

이처럼 지역경기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건축허가 면적이 급감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주택 미분양 사태,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에 따른 주택구입 자금 마련 어려움,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에 대한 부담, 수요자들의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및 관망세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금탁기자



가는 여름이 아쉬운 피서객들 26일 제주도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늦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민기자

최근 3년 농기계사고로 296명 다쳐

소방본부 "사고자 절반이상 예초기·파쇄기 사용중 다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6일 본격적인 벌초와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도민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농기계 사고환자는 2016년 123명, 2017년 92명, 2018년 81명으로 총 296명에 이른다.

특히 전체 사고 중 53%가 예초기, 파쇄기, 경운기 사고로 벌초와 농번기철인 9-11월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출동체제를 확립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작업시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장비사용 중 기계의 회전부에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편한 교복?... 티셔츠에 반바지까지

교육청, 개선 권고안 확정 학교규칙 개선후 내년 반영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해 여름에는 반바지, 겨울에는 후드티와 편한 자켓 등으로 학교별 교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편한 교복' 권고안이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경희)가 지난 23일 제5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중·고등학생 교복개선'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약 100일 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도민의 참여를 통한 속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책권고안은 ▷2019년 말까지 교복 개선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 ▷신축성과 통풍성, 비침이 없는 시원한 소재를 활용한 반팔T셔츠, 반바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하복 개선 ▷활동성과 보온성을 우선 고려한 편한 자켓, 후드티, T셔츠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동복 개선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를 실시할 때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편한 교복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중·고등 학생, 학부모, 교사, 도민을 대상으로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7월 20일 도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해 속의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청은 ▷학칙 개정 관련 교육청과 학교장 간의 권한 사항 ▷편한 교복 도입 시기 ▷학교별 공론화 지원방안 등 정책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심으로 내부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출된 정책권고안에 대한 교육감의 수용 여부는 내부 검토 과정이 마무리되는 9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sjjo@ihalla.com

제주시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제주시가 2020대한민국독서대전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대한민국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모사업이다. 2014년부터 매년 독서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책 읽는 도시로 선포하고 9월 독서의 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대전을 개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앞으로 독서·출판·도서관·서점관련단체들과 협력해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주민 참여 독서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9월 '독서의 달'에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이 위치한 신산공원 일원에서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독서문화 대전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시는 '한라에서 부는 독서바람, 전국을 잇다'를 주제로 한 2020 대한민국독서대전을 통해 독서문화 포럼, 제주책관, 동네책방을 활용한 독서여행 힐링라이프, 남·북 도서전시회, 시민독서토론회마당, 시민그림책도서전 등 전국민 및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최도시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7명)에 의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고대르기자

'길위의 인문학' 참가자 모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문학과 예술, 인문정신을 만나다'를 주제로 '2019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제주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과 미술, 서사문학 세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문의 754-2206. 표성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6·25 인천상륙작전 출정 69주년 및 해병대 창설 70주년 기념 제19회 제주해병대의 날 행사

6·25전쟁 참전 69주년을 맞이하여 해병대 3·4기 선배들의 인천상륙작전 및 서울수복을 기념하며 무적해병의 신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6·25 인천상륙작전 출정 69주년 및 해병대 창설 70주년 기념 제19회 제주해병대의 날 행사"에 귀하를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8월 31일(토) ~ 9월 1일(일) ■ 장소: 해병훈탑 및 탑동 해변공연장(우천시: 시민회관)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 주관 | (사)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후원 | 해병대 제9여단

8월 31일 (토요일)

- 안보체험행사(13:00~20:00) - VR체험 → 소개형, 체험형 - 장소: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 소개형: 유격, 공수, IBS훈련소개 - 체험형: KAAV조종체험
- 군복, 완전무장 전시 / 모병홍보 + 간병 시식

9월 1일 (일요일)

- 해병훈탑참배(10:30~10:50) - 장소: 동문로터리 해병훈탑
- 기념식(11:00~12:00) - 장소: 탑동 해변공연장
- 안보체험행사(09:00~14:00) - 장소: 탑동 해변공연장
- 안보사진전시·장비/군복전시·전투식량전시·체험·홍보부스 운영 등 / 군악 / 의장대시범·모듬북공연
-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감사 오찬(12:30~14:00) - 장소: 제주오리엔탈호텔

(사)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행사문의 · 회장 강대성(010-9173-6226) · 사무처장 고대경 (010-3691-1732)